2021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4월 24일
토요일 오후4시

얼쑤마루 대공연장

명인의 마루

박귀희 1921~1993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Feel the REAL KOREAN HERITAGE

보다 나은 문화재청

국악방송
Gugak Broadcasting System

사진자료 제공 : 국악음반박물관

명인 오마주

국립무형유산원은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복합행정기관입니다.

무형유산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
주제별 무형유산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설·기획 전시실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꿈나래터
기·예능 보유자들의 삶과 예술 가치를 알 수 있는 무형문화재기념관
무형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공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무형유산 문화복합공간 라키비움 책마루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시설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즐기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통형의 열린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명인명무

연출의 글

A productive writing

향사 박귀희 선생님의 흔적을 찾아 헤매다
잠시 멈추어 그분께서 걸어왔을 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선생님께서 걸어온 역사 속의 국악은 뜨겁게 도전하고,
더욱 발전하고 있었으며,
숭고한 인내의 숨결 속엔 먼 훗날의 국악인 들을 위한
고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사 선생님의 열정을 그대로 물려받아 고군분투하며
오늘의 국악을 지켜내고 거듭나길 반복합니다.

“박차여라 나아가세! 어두운 거리에 횃불을 밝혀라!
잃었던 국악을 다시 찾자”

오늘도 누군가에게 커다란 용기와도 같았을
의식과도 같은 주문을 불러보며

오랫동안 국악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국악에 머물 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연출_이왕수

프로그램
Program

1. 판소리 춘향가 中 하루가고 이틀가고
소리_**안숙선**　고수_**정화영**

2.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및 단가 백발가
가야금_**강정숙**　고수_**정화영**

3. 여성국극 <샛별왕자와 콩쥐>
샛별왕자_**이옥천**　콩쥐_**이계순**
아쟁_**성한여름**　대금_**한창희**　장구_**장재영**

4. 박귀희 작곡 가야금 병창 신민요
<샛노란 저고리, 꽃타령, 봄노래>
가야금병창_**정예진, 이영신, 양정이**　고수_**고정훈**

5. 사물놀이
장구_**김덕수**　징_**송동운**　꽹과리_**권설후**
장구_**김성대**　북_**방성혁**

6. 몽금포 타령 & 국악의 노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두레소리합창단, 왕기철

사회_방수미, 강길원
인터뷰 진행 및 해설_윤중강

명인이야기

출연진 CAST MEMBER

판소리 춘향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및 단가 백발가

안숙선
-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 전) 국립창극단 단장 및 예술감독

강정숙
-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 사단법인 가야금병창보존회 이사장

정화영
- 서울시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 경주신라문화제 전국기악경연대회 대상수상

여성국극<샛별왕자와 콩쥐>

이옥천
- 서울시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 사단법인 옥당국악국극보존회 대표이사

이계순
- 서울시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 옥당국악국극배우

성한여름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
-신라문화제 대통령상 수상

한창희
- 국가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강사

장재영
- 제14회 공주 박동진 명창.명고대회 일반부 장원
- 제24회 전국 팔마 고수대회 명고수부 우수상 수상

박귀희 작곡 가야금 병창 신민요

정예진
-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승교육사
- 김해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수상

이영신
-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 목원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강의 전담교수

양정이

-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 KBS 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고정훈

- 서울시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제3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명고수부 장원

사물놀이

김덕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명예교수
- (사) 사물놀이한울림 예술단 감독

송동운

- 김덕수패 사물놀이 단원
- 국가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 이수자

권설후

- 김덕수패 사물놀이 단원
-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대통령상 수상

김성대

- 김덕수패 사물놀이 단원
-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대통령상 수상

방성혁

- 김덕수패 사물놀이 단원
- 연희공방 음마깽깽 동인

몽금포 타령 & 국악의 노래

왕기철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장
- 제27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문 대통령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두레소리합창단

박귀희의 생애와 예술세계

글·사진 제공/노재명(국악음반박물관장)

국악인 후손으로 태어난 박귀희 명인

향사(香史) 박귀희(朴貴姬) 명인은 1921년 음력 2월 6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하판동에서 태어났고, 아명은 장영심(永心)과 장노미, 호적명은 오계화(吳桂花)이다.

부친 장병관은 가산면의 대농이었고 기골이 장대한 무관 집안 출신이며, 모친은 무악 명인 박금영이다. 박귀희 명인은 모친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레 국악을 익혔다고 하겠으며 7세 무렵부터 국악을 본격적으로 정식 학습하기 시작했다. 또 대구에서 공립보통학교 신교육, 그리고 한문 교육을 받았다.

다양한 국악 학습

가야금병창 인간문화재였던 박귀희는 판소리, 창극, 가야금, 설장고, 전통춤 등 여러 가지 예능을 많이 학습한 명인이다.

박귀희는 손광재, 박지홍, 조학진, 유성준, 박동실, 장판개, 임방울, 이화중선, 이기권, 박록주 등에게 판소리를 배웠고 강태홍, 오태석, 정남희, 함동정월 등에게 가야금을 사사했으며 김남수 문하에서 〈승무〉, 〈박전무〉, 〈검무〉, 〈살풀이춤〉 을 배웠다.

1960년대 박귀희 일행 남도민요집 제1집 LP음반

1960년대 박귀희 일행 남도민요집 제1집 LP음반

1960년대 박귀희 가야금병창의 정화 LP음반

1960년대 박귀희 일행 남도민요집 제2집 LP음반

국악 단체, 공연·방송·영화 활동

박귀희는 1934년 대동가극단에 입단하여 활동하였고 한양창극단을 거쳐 1939년에는 임방울·박초월 등과 함께 동일창극단을 창립하여 창극 등의 공연 활동을 하였고, 1940년대 후반 '국악원' 회원 명부(국악음반박물관 소장)에 회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48년 여성국극단의 효시인 여성국악 동호회를 창설하고 상무이사로 활동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여성국악동지사'를 만들어 국극 활동을 하였고 1955년 대한국악원 이사로 활약하였으며, 같은 해인 1955년 한국민속예술학원 원장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후진 양성과 공연 활동에도 힘썼다.

1961년에는 일본 동경에 한국무악원을 창설하고 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한국 민속 가무예술단 단장, 1979~1981년 국립창극단 단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박귀희는 본래 판소리 명창이 되기 위해서 초기에는 판소리 학습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1960년대 초반까지), 나중에는 가야금병창 쪽으로 주력 분야를 변경하였다.

박귀희는 당대 국악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겸비하였고 창극 무대에서 연기력이 우수하며, 탁월하고 화사한 가야금병창 기량을 지녀 20세기 중후반 국악계의 간판 스타로 활약 하였다.

1945년 4월 13일 경성방송국에서 판소리를 방송하고, 1947년 2월 10~15일 국도극장에서 열린 창극 '춘향전' 공연에 출연하는 등 작고할 때까지 가야금산조와 병창, 판소리, 창극, 국극, 민요, 전통춤 등 많은 방송 및 무대 활동을 했다.

1960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여 공연한 바 있으며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공연한 바 있다. 그리고 1961년과 1963년 일본 순회 공연을 하는 등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 '심청전'(1956년 박귀희 국악 수록), '선화공주'(1957년 박귀희 출연) 등 여러 영화에 출연하거나 국악 연주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박귀희 출연 영화 선화공주 1957년 인쇄물

1969년 박귀희 예술생활 30년 기념 공연 인쇄물

1972년 제2회 판소리 유파 발표회 기념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박귀희 모습

1961년 무렵 박귀희 모습

국립극장 '국악의 향연' 박귀희 일행 공연 기사. 1963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

일본 순회 공연 기사. 1963년 1월 22일자 경향신문

음반 취입, 국가무형문화재 활동, 각종 수상, 국악계 원로 활동

6·25 전쟁 발발 무렵 5명창 추모 합동제사 기념사진, 맨 아랫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박귀희 모습

박귀희의 음반은 1950년대 취입한 SP음반부터 1993년 작고 직전 녹음, 근래에 제작된 컴팩트디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남아있다.

박귀희는 1968년 국가무형문화재 (강태홍·오태석제 가야금산조 및 병창 부문)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아 활동하였다. 그리고 1966년 동양방송 주최 명인명창 최우수상, 1973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1977년 서울시문화상 예술부문 수상, 1983년 국제문화협회 사회교육문화상 수상, 1989년 KBS 국악대상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귀희는 말년에도 국악계 원로로 크게 활약하였는데 국악협회 부이사장과 상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국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 전국 민요를 채집하여 문화재관리국에 기증한 바 있다. 또한 옛 명인 명창들의 사진, SP음반 등을 수집 보관하여 국악 역사의 귀중한 자료 뒷받침이 되도록 하였다.

1950년대 박귀희 단가 천생아재 SP음반

1960년대 초반 박귀희 판소리 흥보가 완창 10인치 3LP 음반

1970년대 박귀희 가야금병창 LP음반

1963년 박귀희 일행 한국 민요 10인치 LP음반

1964년 박귀희 일행 한국 명창 제1집 LP음반

1988년 박귀희 가야금병창 LP음반

국악 교육 공헌, 수제자 양성, 신작국악과 국악 악보화 작업, 별세

1980년대 박귀희 가야금병창 모습.(장고 김명환)

박귀희는 여러 국악인들과 함께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 힘을 보탰다. 1955년 박귀희가 김소희*와 함께 서울 돈암동 적산가옥 700평을 불하받아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설립해 무용과 기악, 창악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국악예술학교의 전신이다.

이곳이 1960년 서울 관훈동의 국악예술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이 학교가 서울 남산으로, 1968년에는 돈화문 앞으로 옮겼다가 1970년 서울 석관동에 처음 학교 건물을 제대로 지은 후 1973년 문교부 인정 정규 고등학교가 되었다. 박귀희가 이때 초대 이사장이 되었다.

국악예술학교가 1970년에 서울 석관동으로 이사한 후 박귀희는 운동장이 없는 게 마음에 걸려 1989년 서울 운니동에 있던 자신 소유의 운당여관을 국악예술학교 이전 비용으로 내놓았다. 석관동 교사 판매대금 20억원에다 박귀희가 살던 운당여관을 처분한 돈과 박귀희의 대전 과수원을 매각한 돈을 합친 38억원을 보태 1992년 국악예술학교가 시흥의 넓은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는 2008년 국립전통예술학교로 전환되었다.

박귀희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철천지한이 되어 학교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다 한다. 1993년 박귀희가 작고할 때 마지막으로 지니고 있던 현금 마저 이 학교에 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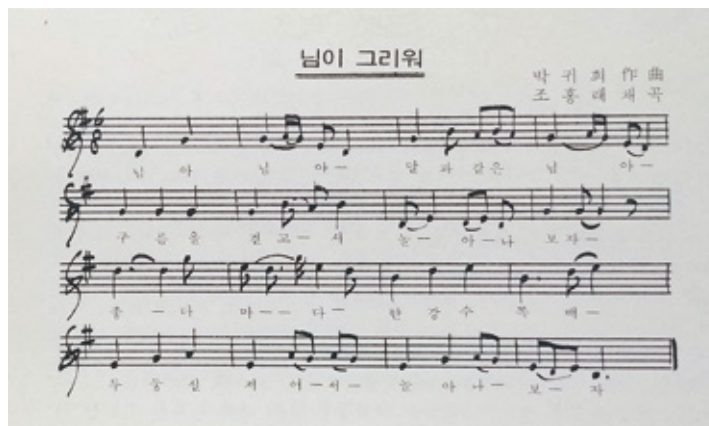
박귀희는 자신의 특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정된 가야금병창 부문의 수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그 가운데 안숙선과 강정숙이 박귀희의 가야금병창 후계자로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활동 중이다.

박귀희는 새로운 국악을 창작하고 국악을 악보화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아 1979년 『향사 박귀희 가야금병창 곡집』 서적을 비롯하여 여러 신곡 음반 등의 결실을 발표하는 등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악을 위해 초인적인 힘을 쏟다가 1993년 7월 14일 서울 운니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전통사회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받은 설움을 이겨내며 고정 관념을 깨고 어머니 성씨를 따라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고, 어떠한 남자들도 해내지 못했던 문화예술계의 큰일들을 앞장서 추진하고 소외된 국악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며 인생을 바쳤다. 진정 강직하고 큰 사람의 고되지만 아름다운 일생이었다고 생각된다.

* 만정(晩汀) 김소희(金素姬, 1917-1995).
20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1985년 향사 박귀희 작곡 및 작품집 LP음반



박귀희 작곡 악보(님이 그리워)

1979년『향사 박귀희 가야금병창 곡집』출판기념회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박귀희 모습

박귀희 명인
주요 약력

1921 · 경상북도 칠곡에서 출생

1935 · 대구보통학교 졸업

1937 · 유성준 명창 문하에서 창악 사사

1939 · 동일창극단 창립

1940 · 강태홍 명인 문하에서 가야금산조와 병창 사사

1941 · 오태석 명인 문하에서 가야금병창 사사

1948 · 여성국악동호회 창설, 상무이사

1950 · 킹스타음반회사에서 단가, 가야금병창, 남도민요 등 SP음반 취입

1955 · 한국민속예술학원 원장
· 대한국악원 이사

1960 · 국악예술학교 설립
· 초반 킹스타음반회사에서 판소리 흥보가 완창 10인치 LP음반 취입
· 미국 시카고 국제예술제 공연

1961 · 일본 동경 한국무악원 창설, 원장
· 한국민속가무예술단장
· 프랑스 파리 국제민속예술제 공연

1963 · 국립극장에서 3일간 제1회 발표 공연

1964 · 일본 동경 올림픽 예술제 공연

1968 · 국립극장에서 동경한국무악원생과 발표 공연
·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보유자로 인정

1969 · 시민회관에서 예술 생활 30년 기념 공연

1970 · 일본 EXPO 공연

1972 · 독일 뮌헨 올림픽 공연 및 24개국 순회 연주
· 일본 삿포로 동계올림픽 공연

1973 ·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1975 · 일본 EXPO 공연

1976 ·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공연

1979 · 『향사 박귀희 가야금병창 곡집』 서적 발표
국립창극단 단장 (~1981)

1985 · '향사 박귀희 작곡 및 작품집' LP음반 발표

1989 · 본인 소유의 운당여관 매각 금액을 국악예술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기부
·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1993 · 서울 운니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

1994 · 박귀희 자서전
『순풍에 돛 달아라 갈길 바빠 돌아간다』 출판

* 신작곡 및 편곡 50여곡 남김
* 창극 출연 활동
19세時 추풍감별곡(취향역), 20세時 남강풍운(여자 중요역),
21세時 안목장군(장군역), 23세時 흥보전(흥보역), 24세時 춘향전(이도령역),
26세時 쌍동왕자(왕자역), 27세時 선화공주(맞동왕자역), 28세時 햇님달님(햇님역),
30세時 가야금의 유래(가실왕역), 33세時 왕자호동(왕자역) 등 창극 출연

STAFF

연출 이왕수
공연PD 하윤아
무대감독 박준평
무대기계감독 라경채
음향감독 이재정, 장현석
조명감독 박재섭, 최영웅
하우스매니저 서혜진
작가 진경은, 안선우

국립무형유산원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전주터미널(고속·시외버스) 하차시

- 고속버스터미널, 불교회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00번 버스 이용
- 190번 버스 이용

▸ 남고사입구 하차

- 국민은행금암지점에서 429번, 725번, 752번, 785번 버스 이용

▸ 국립무형유산원정류장 하차

기차역 하차시

- 전주역첫마중길 정류장에서 1000번 버스이용

▸ 남고사입구 하차

- 택시이용(약 20분 소요)

자가용

호남고속도로

- 전주IC↔국립무형유산원(35분 소요)

경부고속도로

- 동전주IC↔국립무형유산원(20분 소요)

주차

- 서편 주차장 50대, 동편 주차장 100대(무료)

공연문의 및 예약

공연예약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www.nihc.go.kr
공연문의 063-280-1500, 1501
전석 무료 공연(공연 7~10일 전부터 예약 가능)

국립무형유산원 채널

네이버TV
국립무형유산원 채널
https://tv.naver.com/nihc

국악방송 라디오 '온고을 상사디아' 방송
5월 8일 오후 2시

위 공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일부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